



왼쪽부터 엠넷 '더콜', tvN '식량일기', JTBC '한끼줍쇼'



월드컵 보다 뜨거운 축구스타 예능 활약 박지성·이영표·최용수 등 입담 과시

월드컵 기간 각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도 월드컵 붐업을 위해 잇달아 자사 월드컵 해설위원 등 축구 스타들을 출연시키고 있다.

SBS TV '집사부일체'는 SBS 월드컵 해설위원이기도 한 박지성을 섭외했다. 지난 11일 방송에서 멤버들의 열한 번째 사부로 등장한 박지성은 수원의 박지성 유소년 축구센터로 향해 그의 런던 생활과 '말바보' 일상을 공개했다. 런던 집 초대를 걸고 박지성과 '팀 집사부'로 뭉친 멤버들은 1대4로 축구 대결을 펼쳤다.

'집사부일체' 박지성 편은 지난 11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방송됐다. 방송사 관계자는 "박지성 선수가 해설위원을 맡아 월드컵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적당하고 선수 시절 활약이 컸기 때문에 출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S 월드컵 해설위원 이영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월드컵 붐업을 위해 마련된 KBS 2TV '불쇼이영표'라는 월드컵 특집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을 만났다.

'불쇼이영표'에는 이영표 외에도 '축구덕후' 가수 윤두준과 방송인 신아영이 출연해 신태용 대표팀 감독과 단독 인터뷰하고 우리 팀과 맞붙을 상대국의 전력을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는 최용수 전 FC서울 감독이 출연했다. 그는 프로그램의 MC이면서 전직 축구선수인 안정환과의 '양속 조합'을 뽑내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기습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지상파 3사의 해설자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최용수 감독은 "안정환은 해설자인데 축구를 관라하는 것 같다. 친근감 있는 해설이 매력적이다"고 평가했다.

MBC 월드컵 해설위원인 안정환은 지난 6일 MBC TV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그는 방송에서 이영표·박지성 해설위원에 대해 "이영표는 전달력 좋고 논리적이지만 지루하다"며 "박지성은 해설을 맡은 것이 부담이 컸을 것이다. 부담이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집사부일체' 박지성, '불쇼이영표', '냉장고를 부탁해' 최용수

다양화 된 예능, 트렌드를 잠재우다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놨어"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요새 방송 예능 트렌드는 '취향 존중'이다.

여행부터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관찰 예능까지 한 가지가 유행하면 해당 테마의 예능들만 우후죽순 이어지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영역별로 다양한 예능이 사이좋게 공생 중이다.

전체 예능을 테마별로 분류해보면 ▲ 여행·체험(외국인 출연 포함) ▲ 먹방 ▲ 쿡방 ▲ 뷰티 ▲ 셀리브리티 부부·자녀 등이 출연하는 가족 예능 ▲ 독신 관찰 ▲ 연예 리얼리티 ▲ 음악 ▲ 토크쇼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여행·체험은 가장 많은 프로그램 수를 자랑하는 테마이기도 하다. 해당 테마에서 한 프로그램의 장수(長壽)가 확인되면 조금씩 포맷을 변형하는 '가지치기' 방식으로 파일럿을 선보였다가 호응을 얻으면 정규로 편성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세계 곳곳 오지를 탐험하는 SBS TV 장수 예능 '정글의 법칙'에 이어 최근에는 사막을 횡단하는 KBS 2TV '거기가 어디대?'가 등장했고 조만간 tvN에서는 미국 내 화성연구기지로 떠나는 '갈릴레오'를 방송한다.

가성비 좋은 여행 코스를 소개하는 KBS 2TV '배틀 트립'이 3년째 안정적으로 방송되자 JTBC '몽쳐야 떠다', tvN '짬내투어' 등이 나와 각각 자리를 잡았다.

MBC에브리원에서 기록에 남을 만한 히트를 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후 외국인과의 교류를 담은 여행 예능은 올리브 '서울메이트', KBS 2TV '하룻밤만 재워줘', MBC TV '선을 넘는 녀석들' 등으로 겹가지를 찼다.

낯시를 테마로 한 채널A '도시어부', 웰빙을 주제로 한 O tvN '오늘 내일', 중년 싱글들의 여행 SBS TV '불타는

영역별 먹방·쿡방·관찰예능 등 다양 인기 테마에서 포맷 변경 세분화 돼

프로그램 수 늘어 새 소재 찾기 노력도

정촌' 등도 성업 중이다. 여행은 아니지만 '체험' 범주에 넣을 만한 SBS TV '집사부일체'와 MBC에브리원 '시골경찰3' 등도 호응을 얻는다.

먹방과 쿡방 역시 꾸준하다. 먹방은 해당 테마 원조 격인 tvN '수요미식회'와 남다른 대식가들의 먹방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올리브 '원나잇 푸드트립', 일반 시민들과의 교류를 담은 JTBC '한끼줍쇼' 등이 대표적이다.

쿡방은 셰프 또는 전문가가 출연하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 외에 최근 연예계 손맛으로 유명한 김수미가 출연하는 tvN '수미네 반찬', 식재료부터 직접 키우는 체험형 포맷의 tvN '식량일기' 등으로 무한대 확장을 거듭한다.

가족 예능은 좀 더 '핫한' 출연자 모시기 경쟁에 여념이 없다. '추우커피' (추자현-위사오광)을 낳은 SBS TV '동상이몽2'에 대적해 TV조선에서는 18년 나이 차를 극복한 한소원-진화 부부를 '아내의 맛'에 출연시켜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 만만치 않은 나이 차이의 미나-유희림 부부를 만날 수 있는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와 SBS TV '백년손님'도 꾸준히 방송 중이다. 셀리브리티의 자녀들

이 출연하는 E채널 '내딸의 남자들3', tvN '동지탈출'도 시즌을 거듭하고 있다.

독신 셀리브리티들의 일상 관찰 예능도 여전히 인기다. 한 자릿수를 벗어나기 어려운 최근 방송 환경에서 매주 시청률 20%를 기록 중인 SBS TV '미운 우리 새끼'부터 MBC TV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이불 밖은 위험해', MBN '비행소년' 등이 대표적이다.

음악, 뷰티 등 전문 분야 예능도 끊임없이 변종을 날고 있다.

음악 예능은 KBS 2TV '불후의 명곡'이나 MBC TV '복면가왕', 엠넷 '더콜', '브레이커스' 등 전통적인 경연 형부터 엠넷 '프로듀스48' 등 오디션, MBC TV '뜻밖의 Q'와 tvN '놀라운 토요일' 등 퀴즈쇼까지 한동안 보이지 않던 포맷도 재등장했다. 여행과 결합한 버스킹 형태의 JTBC '비긴어게인'도 벌써 시즌2를 맞았다.

"짹" 이후 잠잠한 연예 리얼리티도 채널A '하트시그널 2' 히트에 SBS TV '로맨스 패키지', tvN '선다방', XtvN '한쌈' 등 다시 불이 켜졌다.

고전 예능인 토크쇼 형식 역시 KBS 2TV '안녕하세요', MBC TV '라디오스타', KBS 2TV '해피투게더3',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JTBC '아는 형님', tvN '인생술집' 등으로 명맥이 이어진다.

매번 새로운 예능을 선보이는 CJ E&M 관계자는 17일 "중편들도 예능을 많이 제작하는 등 프로그램 수 자체가 늘면서 소재도 더 다양한 곳에 눈을 돌리게 된 것 같다"며 "또 먹방이 농방(농촌방송)으로 심화하는 등 최근 시청자들의 세분화한 취향에 맞추기 위한 노력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러시아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더치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 50 UHD 숨터(재)	00 너도 인간이니?(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더치	00 SBS 12뉴스 1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2018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차츰우물 만큼 유망기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특집다큐 월드컵과 대한민국	35 헬로키즈 아해! 동물탐험대 2	00 뉴스브리핑
3	1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하이라이트	30 TV 유치원	05 사이닝스타 3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여유만만(재)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15 양코리 MBC 다큐프라임 <청년 농부 1부 틀을 깨다>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5 생방송 빛날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월드컵 투데이 30 2TV 생생정보	1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프리뷰쇼 미러볼	00 집사부일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4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대한민국·스웨덴, 예선 F조>	00 MBC 뉴스데스크 40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스웨덴>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0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대한민국·스웨덴>
8	25 내일도 맑음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11	00 KBS 뉴스라인 4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예선 G조, 벨기에·파나마>	10 너도 인간이니?	00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벨기에·파나마>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20 사랑의 가족(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름다운 <세계의 잔치음식 태국 송크란, 카오니아우마무앙>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연일철밥과 참외장아찌>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마사와 곰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30 띠띠뽀 띠띠뽀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8:00 생방송 톡톡! 보나하니1~5
07:30 띠띠뽀 띠띠뽀	13:00 다큐 오늘	19:00 몬카트
08:00 당동명 유치원1~2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9:30 EBS 뉴스
08:30 몬카트(재)	13:40 배워서 남줄림(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45 방귀대장 뽀뽀	14:30 몬카트(재)	20:40 세계테마기행
09:00 뽀뽀뽀 뽀로로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비람의 계곡 1부 집으로 가는 길>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큐프라임 <우포늪의 사람들>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메디컬 다큐-7요일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3:55 배워서 남줄림(재)
	16:15 뚝딱맨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8일 (음 5월 5일 辛巳)

<p>36년생 조짐은 현상을 예견케 하리라. 48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60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72년생 폭 넓은 안목이 길장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84년생 취약점이 보이니 서둘러 보완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98, 83</p>	<p>42년생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 한다. 54년생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알차다. 66년생 한 가지 생각이 몰두하다가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 78년생 설계를 잘해야 구조물이 제대로 지어지는 법이다. 90년생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라. 행운의 숫자 : 24, 11</p>
<p>37년생 계획한 바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찬스이다. 49년생 큰 가닥을 잡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61년생 과민해져 있지 않나 살펴보아야겠다. 73년생 실제의 이면을 파악해 보는 것이 맞다. 85년생 예상 틀지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0, 45</p>	<p>43년생 지금은 잠자코 있어야 할 지경이다. 55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주된 일을 도모해야 한다. 67년생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중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활기를 띤다. 91년생 극한적인 돌발 사태가 보이니 매사에 신중 하라. 행운의 숫자 : 09, 62</p>
<p>38년생 주관적인 심리상의 속단은 금물이다. 50년생 끝부분에 중요한 핵심적 사실이 깃들여 있다. 62년생 옆 드러 있는 호랑이가 보이지 조심하라. 74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86년생 변화가 온다. 행운의 숫자 : 58, 10</p>	<p>44년생 무리 없는 양상으로 이끌어라. 56년생 상대는 다 알면서도 내용을 떨고 있다고. 68년생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 동안 머뭇거리게 된다. 80년생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92년생 자신의 수중에 두는 것이 편하다. 행운의 숫자 : 33, 59</p>
<p>39년생 내부적인 단속과 확실한 절제가 절실한 때이니라. 51년생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63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75년생 개별적인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87년생 언행을 무겁게 하되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이롭다. 행운의 숫자 : 00, 13</p>	<p>45년생 생산적인 국면으로의 전환과 운용이 절실하다. 57년생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69년생 함께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81년생 원상회복의 기쁨이 크도다. 93년생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70, 01</p>
<p>40년생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광 받게 되는 날이다. 52년생 성과가 전양지자이다. 64년생 결정은 속히 하되 실행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76년생 최근에 관련된 것이 간간히 이루어진다. 88년생 제대로만 한다면 대박 나겠다. 행운의 숫자 : 34, 94</p>	<p>34년생 미련을 버리는 것이 낫다. 46년생 길흉이 혼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58년생 역사사지 해본다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되리라. 70년생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82년생 공들여 왔던 것에 희망의 싹이 튼다. 행운의 숫자 : 23, 05</p>
<p>41년생 지속적으로 신경 써라. 53년생 설계에 빈틈이 없어야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다. 65년생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77년생 가변적인 모습이니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89년생 공동 탑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7, 34</p>	<p>35년생 다각적인 관점과 인식이 절실히 요청 된다. 47년생 준비 해두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59년생 말리사부터 걸음이 바뀌오니 만사여의하리라. 71년생 고생한 만큼 비례한 대가가 주어진다. 83년생 한꺼번에 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56, 51</p>